

2018. 2. 28. 12: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공보담당관 지정장 안범진  
전화 041-660-4301 / 팩스 041-660-4439

## 보 도 자 료 2018. 2. 28.(수)

자료문의 : 부장검사실  
전화번호 : 041-660-4328  
주책임자 : 부장검사 박주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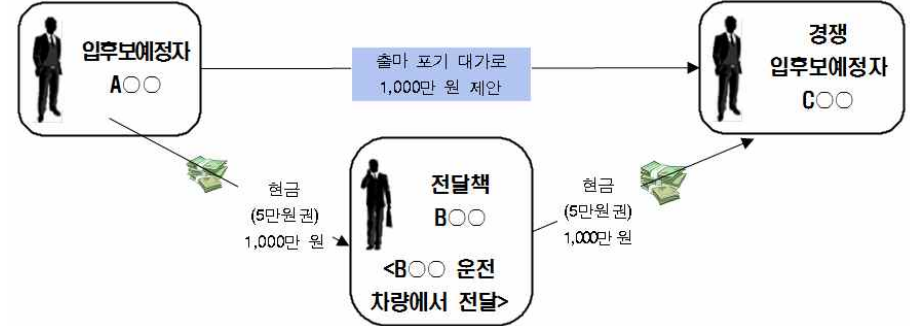
### 제 목

## ‘후보단일화’ 명목으로 경쟁후보자를 1,000만 원에 매수한 서산시의원 출마예정자 등 2명 구속기소

-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지청장 안범진)은 2018. 6. 13. 실시 예정인 제7회 지방선거 서산시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 등록을 포기시킬 목적으로 경쟁후보자에게 1,000만 원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등을 적발하여 공여자 및 전달자를 구속 기소하고, 수수자를 불구속 기소하였음
- 이번 사건은 6. 13. 지방선거 관련 『전국 최초 구속사례』로, 선거가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이 ‘후보단일화’ 명분으로 뒷돈을 주고받은 것을 신속히 적발하여 사건발생 20여일 만에 구속함으로써 금품선거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각인시킴
- 검찰은 향후에도 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금품선거를 비롯한 6. 13. 지방선거 관련 불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아갈 계획임

### I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

- A○○(58세, 서산시의원 입후보예정자) / B○○(70세, A○○지지자·전달책) C○○(40세, 서산시의원 입후보예정자)
- A○○·B○○는 공모하여, 2018. 1. 26. 서산시의원 선거의 경쟁 입후보예정자 C○○에게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현금 1,000만 원 제공



### II 수사 경과

- 2018. 2. 1. 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 A○○ 및 B○○ 고발
- 2018. 2. 2.~27. 피의자 사무실 등 압수수색·피의자 조사 등 수사
- 2018. 2. 21. A○○ 및 B○○ 구속
- 2018. 2. 27. C○○ 추가 입건
- 2018. 2. 28. A○○ 및 B○○ 구속 기소, C○○ 불구속 기소

### III 수사 의의 및 향후 계획

- 【6. 13. 지방선거 관련 최초 구속사례】 이 사건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6. 13. 지방선거 전국 최초 구속사례로서, 선거를 100여일 앞두고 예비후보 등록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금품선거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각인시킨 사례임
- 【금품선거에 대한 신속한 처벌】 검찰은 선관위 고발장 접수 직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실시하여 발생 20여일 만에 사건의 전모를 규명함으로써 경쟁 입후보예정자를 매수한 구시대적 금품선거범죄 사범 2명을 구속함
- 【검찰·선관위의 유기적 공조】 검찰은 6. 13. 지방선거 선거사범에 대응, 2018. 1. 10.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를 계기로 선관위와 공조 시스템을 구축한 결과, 사건 발생 직후부터 원활하게 협업하여 효율적 수사가 가능하였음
- 【향후 계획】 검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금품선거·거짓말선거·공무원 선거개입·여론조사 조작·부정 경선운동 등 주요 선거범죄를 엄단할 방침임 ☒